

“정치공세, 낭비·분열... 진실 밝혀야”

민주 이원택 도지사 후보, '정읍 식당 모임' 의혹에 "사실과 다른 내용 반복 확산" ... 수사기관 수사 촉구

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이원택 국회의원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의 정치공세는 낭비와 분열”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제3자 대남”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 확인 없이 확대 해석된 주장”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안호영 의원과 일부 청년들이 제기한 ‘정읍 식당 모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반복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는 먼저 식사비 결제 논란과 관련해 “해당 자리의 결제 과정에 일체 관여한 바 없다”며 “본인과 수행인력의 식사비는 별도로 처리됐고 전체 결제 방식 역시 사전에 알지 못했

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대남’으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 확인 없이 확대 해석된 주장”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확된 자리가 아님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정보와 선거운동 논란에 대해서는 “청년 정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성격이었다”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수 참석자와 제3자 목격자들도 정책·문화·예술·지역 문제 등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류 시간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상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끝까지 머물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사실을 단정하고 정치적 공세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CCIV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재검찰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대 후보 측 요구에 따라 일부 참석자 조사가 있었을 뿐 후보자 결정 번복을 위한 재검찰은 없었다”며 “이는 음해를 위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은 송구스럽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바로잡고 책임 있게 소명하겠다”며 “민주당 후보로서 책무를 묵묵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양성민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은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채 진행된 가짜 시스템 공천”이라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 장수군수 경선 공정성 파문

양성민 예비후보 “당헌·당규 무너진 가짜 시스템 공천” “재심위가 내린 결정 최고위가 뒤집어” 당 지도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후보 선출을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양성민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경선은 당헌과 당규를 정면으로 위반한 채 진행된 가짜 시스템 공천”이라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양 후보는 특히 중앙당 재심위원회가 접수된 16건의 안전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가 이를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가각한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재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해 내린 결정을 최고위가 뒤집은 것은 당헌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공정한 경선을 기대한 후보자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상대 후보의 위법 행위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양 후보 측에 따르면 전북도당은 경선 기간 중 선거 당일 오프라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지침을 공시했지만 상대 후보는 경선이 시작된 11일 오전 선거 집회를 포함한 채 여러 장소를 돌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이어 다음 날에도 배우자와 함께 동일한 방식의 선거운동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1차 주의 조치를 내리고 재발 시 엄중 제재를 경고했으나, 실제로는 추가 위반에도 불구하고 경고 수준에 그치며 경선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명백한 반복 위반이 확인됐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부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양 후보는 과거 장수군 지역에서 발생했던 경선 부정 사례도 언급하며 문제의 구조적 반복성을 제기했다. 그는 “과거 조직적 경선 부정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문제가 재발되고 있다”며 “장수군이 부정 경선의 고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양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민 중심과 법과 원칙이 바로 선 정치를 만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경선에 임했지만, 당이 부정 행위를 비호하는 상황에서 그 뜻이 무너지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문제된 후보에 대한 자격 박탈과 재심 결정 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오만호 기자



새만금 전북 대학선TF 회의 주재하는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사진 가운데)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만금 전북 대학선TF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이원택 의혹, 공정성 회복이 우선”

안호영 의원, 당 지도부에 재검찰 촉구 당 윤리감찰단 조사 신뢰성 지속 제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자로 확정된 이원택 후보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공정한 재검찰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안호영 국회의원은 당 윤리감찰단의 ‘혈의 없음’ 판단 이후에도 철저적 정당성과 조사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최근 국회법을 찾아 증언한 전북 지역 청년 2명의 진술이다. 이들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증언했지만, 정작 당의 공식 조사는 그 전날에야 처음 이뤄졌다고 밝히면서 조사 시점과 방식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의원은 20일 국회 천막 앞에서 단식 중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와 판단은 성급하고 부실했다”며 “지도부가 더 이상 특정 후보를 방어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지금이라도 투명하고 재검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그는 정청대 대표를 향해 “이번 감찰이 과연 공정했다고 지금도 판단하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정면으로 제기했다.

청년들의 증언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이원택 후보는 해당 모임에 끝까지 함께했

으며, 마지막에는 단체 기념촬영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식사 자리에서는 사실상 지지를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더욱이 해당 자리가 사전에 ‘청년 간담회’로 안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다. 참석 청년들은 이를 정책 간담회가 아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성격의 자리로 인식했는데, 이후 이를 단순 정치공세로 규정하는 것은 진실을 말한 청년들을 흔들고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시도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청년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자신이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보다 분명한 결단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방어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재조사”라며 “증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검증한 뒤 책임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히 한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당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를 좌우할 사안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사당국을 향한 요구도 이어졌다. 안 의원은 식사비 대납 의혹과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해 경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미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만큼,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도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청년이 상처받지 않는 정치, 진실이 외면되지 않는 전북, 정의가 바로 서는 민주당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번 사안이 공정한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만호 기자

민주 도당 선관위, ‘공정·책임 경선’ 촉구... 비방·허위사실 강경 대응 예고

“허위사실 유포·인신 공격, 당 분열·유권자 혼란 초래” 당원·지지자에 “후보자 정책·자질 중심으로 판단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영자)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선 분위기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운동을 강조했다.

전북도당 선관위 박영자 위원장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선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후보자의 역량과 비전을 검증받는 과정”이라며 “공정과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2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기초단체장 경선을 앞두고 과도한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 지역에서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분대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에게 정책과 실천 계획 중심의 경쟁을 주문하며,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인신 공격은 당의 분열과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후보자들은 자신이 왜 선택받아야 하는지를 정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허위 사실이 득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중과 절제를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선거운동이 선출직 후보자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당원과 지지자들에게도 성숙한 참여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경선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과 경쟁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이유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며 “자극적인 정보나 근거 없는 주장에 흔들리보다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중심으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선관위는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공정 행위

나 허위 사실 유포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경선의 품격이 곧 정치의 수준을 결정한다”며 “검정된 경쟁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질 때 유권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와 당원, 지지자들에게 감정적 대립과 과열을 경계하고 공정한 경선 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오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국토부, 오늘 'AI 시티 기업 간담회' 개최

정부는 도시 운영·관리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해 시민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K-AI 시티 실현을 위해, 기업들과 함께 AI 시티 추진 전략을 점검하고 법·제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1일 오후 성공적인 AI 시티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9월 발족한 AI 시티 추진 TF의 세 번째 회의로, AI 시티 선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AI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민간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

고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정부는 AI 시티 선도사업으로 AI 특화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 공모 선정지역 2개소와 새만금 AI 수소 시티 등에 대해 계획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그룹, 네이버클라우드, 솔트룩스, 카카오모빌리티, 노아AI, 디토너, NHN 등 AI·데이터 분야 7개 기업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민간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오만호 기자

새만금청,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

새만금개발청(청장 직무대리 정인권, 이하 새만금청)은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2026 새만금애(愛) 한 줄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만금을 로봇,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에 기반한 미래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국민들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안받으려 한다.

새만금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소통24 누리집(sotong.gakr)' 설문조사 창구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새만금청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커피 기프트폰을 제공하고,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오만호 기자